10·25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채일병 후보가 25일 밤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與 또 완패…정계개편 가속화 될 듯

전남 전승 노린 민주, 상승세 꺾여

10·25 재보선과 정국 전망

10·25 재보선이 또 다시 여당의 완패로 끝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론이 조기 가열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두 곳의 국회의원 선거에 희망을 걸어왔던 열린우리당은 호남 민심이 실린 해남·진도에서 민주당에 패하고 수도권 민심이 반영된 인천 남동을을 한나라당에 내줘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됐다. '개성 춤 파문'으로 궁지에 몰렸던 김근태 의장 중심의 지도체제 재편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전남지역 재·보선 지역 3군데 전승을 노렸던 민주당은 화순군수 선거에서 패배해 '공천 실패'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신안군수 선거의 경우도 25일 밤 11시 현재 무소속 후보에게 선두를 내주었다. 특히 5·31 지방선거 이후 호남 맹주를 자처했던 민주당의 상승세가 꺾이게 됐다.

한나라당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기대하며 대선주자 '빅3'가 지원유세에 나섰으나 기대만큼 '서진(西進)'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재보선 패배로 김근태 의장 중심의 비상대책위 체제에 대한 책임론과 지도체제 재편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전당대회를 둘러싼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나아가 정계개편의 방향과 폭을 놓고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완전히 버리고 '헤쳐모여식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다수 의원들과 여당 중심의 정치권 재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당내 친노 그룹의 갈등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궐선거 3군데 전승해야 본전'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은 상당한 후폭풍에 휩싸이게됐다. 한화갑 대표는 그동안 선거 지원유세에서 "해남·진도에서 승리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가 다시 12명으로 늘게 된다"며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00척의 왜군을 물리쳤듯이 반드시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겠다"고 역설해왔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화순군수 선거에서의 패배로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 추동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금주 말 목포 방문 이후 호남 민심의 향배 또한 향후 정계개편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화순, 부부군수 이어 형제군수 탄생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재·보선 결과 형제(兄弟) 군수가 탄생했다. 또 부자(父子)군수의 탄생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선자치 들어 화순에서 부부(夫婦)가 대를 이어 군수에 당선된 적은 있으나 형제 군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실시된 화순군수 보궐선거에서는 전형준(50) 전 군수의 동생인 무소속 전완준(47) 후보가 민주당 정완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형인 전형준 전 군수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63.5%(2만4천710표)의 득표율로 무소속 이영남 후보를 1만여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재판도중인 지난달 18일 사직해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

형인 형준씨는 다산건설 대표, 동생인 완준씨는 성안그룹 회장을 지내는 등 건설업을 기반으로 자수성가한 CEO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전 당선자는 "형이 중도에 낙마함으로써 이루지 못한 각종 화순 발전 공약을 실천해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안순일 교육감 당선자가 풀어야 할 '광주교육'의 과제

'비리 온상' 오명 벗을 '새판' 짜라

'인사 탕평' 갈등 치유…조직안정 급선무

재정 확충·'실력 광주' 명성 회복도 시급

광주교육이 신설학교 납품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와 교육재정 악화,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내부 분열 등 총체적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현직 교육장인 안순일 후보가 외부 인사를 제치고 교육감에 당선된 것은 '안정 속에 개혁'을 갈망하는 지역민의 의지 반영으로 풀이된다.

광주시교육청의 핵심 간부로 현 사태에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데다 위기의 실체와 해결방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임해, 흐트러진 광주교육을 바로잡고 '실력'광주의 명성을 되찾아달라는 것이다.

◇조직 안정 꾀해야=광주교육이 총체적 위기에서 헤어나려면 당장 극심한 내부 분열을 봉합해 조직 안정을 꾀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직 교육장 2명이 동시에 출마하면서 시 교육청 일반행정직의 경우 5급 이상이 지지 후보에 따라 양분됐고, 장학관·과장 등 교육전문직은 더욱 분열이 심했다.

초등 출신과 중등 출신의 교육장이 맞붙으면서 초등과 중등의 오랜 갈등과 반목이 더욱 심화됐다.

선거가 끝나면 의례 나타나는 것이 엽관주의(spoils system) 병폐다. 당선자가 새로 조직을 구성하고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선거 중 보였던 공헌도나 충성심에 따라 임명하는 것이다.

안순일 당선자는 제2대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김원본 현 광주시교육감을 지지하지 않고 상대 후보를 지지해 이후 적잖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 '아픔'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당선자가 공정심을 발휘, 능력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탕평'으로 조직의 안정과 재정비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청렴성 회복 급선무=광주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청렴도 조사에서 지난 2004년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와 학교 부교재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 "이번에는 정말 새판을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직의 대대적 개편·부정부패 근절 시스템 구축·제도 개선 등 '개혁'을 단행해 잃어버린 신뢰를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급식·학교기자재 납품 업체와 교육계 관계자와의 부정비리 커넥션을 확실히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재정 확충에 전념해야=광주시교육청의 부채는 내년 2월 발행할 2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포함해 총 1천3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377억원에 달한다. 본예산 9천403억원의 4%에 해당한다. 비교적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사업비가 727억원(7.7%)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돈이다. 신규사업 추진은 아예 어렵고 계속사업 역시 사업재검토 및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이뤄져 현행 일반 내국세의 19.4%인 교부율이 21%로 상향 조정되지 않는 한 교육재정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력'광주 명성 회복해야 = 광주는 지난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매년 서울대에 300여명 이상의 학생을 합격시켰다. 20~30명을 합격시킨 학교도 다수였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많은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 다른 지역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됐다. 타지역의 교육 관계자가 잇따라 광주를 방문, '실력' 광주를 벤치마킹해 갔다.

하지만 최근 5~6년 사이 수월성 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실력'광주는 옛말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광주지역 서울대 합격자(최초합격자 기준)는 129명으로 지난해의 167명에 비해 무려 38명이 줄었다. 61개 고교 중 21개 고교는 단 한 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안순일(왼쪽) 광주시교육감 당선자가 25일 김관재(광주지방법원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안순일 당선자 인터뷰

"과감한 혁신으로 실추된 신뢰 되찾겠다"

안순일(61·광주동부교육장)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중국 혁명의 선도자인 쑨원(孫文)이 즐겨 썼던 '입지주대사 불요주대관(立志做大事 不要做大官)'이란 말로 당선 소감을 대신했다.'뜻을 세워 큰 일을 하되 큰 벼슬아치가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안 당선자는 "교육감은 벼슬이 아니고 일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28만3천여명의 학생과 1만3천명의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의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소감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어진다는 말이 있다. 교육감으로 뽑아준 교육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청렴성, 도덕성 문제로 실추된 광주교육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모든 교육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대통합의 장을 열어가겠다. 겸허한 자세로 학생 중심의 교육을 펼쳐 나가겠다.

-결선투표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41년 교직생활 중 교직동료, 학부모,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를 쌓아왔던 것이 선거를 통해 표출된 것으로 본다. 선거결과에 나도 놀랐다. 깨끗하고 청렴하고 올곧게, 오로지 학생교육에만 전념해온 결과라고 본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청렴성, 도덕성 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 인사·재정·시설 등 모든 분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혁신하겠다. '실력'광주의 전통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탕평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중용하겠다.